

#### 4) 청년단체 연합기관의 출현

1925년 여름 순천청년회는 광양청년회, 광양청년연맹과 함께 광양·순천·고흥·구례·보성·여수 6개 군 청년단체의 연합기관인 전남동부청년연맹(이하 동부청년연맹으로 약칭) 결성 준비에 착수하였다. 1925년 7월 29일 동부청년연맹 발기회는 가입자격을 1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조선인 청년단체로 결정하였다. 이어 벌교·보성·고흥 방면(정순제), 순천 방면(한태선), 구례·곡성 방면(정태중), 광양 방면(정순화), 여수 방면(신명준)에 출장위원을 파견하여 발기 취지를 선전하면서 가맹단체를 모집하였다.

드디어 9월 15일 동부 각 군의 14개 청년단체 대표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승평학원 대강당에서 동부청년연맹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다수의 노동단체 대표들도 방청석에 앉아 회의 진행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정순제(순천)의 개회사가 끝나자 임시집행부로서 의장 신명준(광양), 부의장 이용근(李溶根 : 벌교)이 선출되었다. 회의는 경과보고(박영진), 축전·축사 낭독(정순제), 선언·강령·규약 통과, 집행위원 선거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의안을 상정한 다음 회의를 끝마쳤다.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에 속개된 회의는 의안 토의로 시작되어 순천 농민연합회위원 이영민의 축사를 들은 후 오후 5시에 만세삼창으로 폐회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시위행렬을 지어 동부청년연맹기를 선두로 하여 군악을 울리고 적색 전단을 살포하면서 시가를 일주하였다.

동부청년연맹의 가맹단체는 순천청년회·순천노동청년회·쌍암면청년회·동초면청년회·서면청년회, 고흥동강(東江)청년회, 광양청년연맹·광양청년회·광양청년단·광양태화(太華)청년회·광양육영구락부·광양진명회(進明會), 구례청년당, 보성벌교청년회의 14개 단체로서 순천과 광양 청년단체가 주력을 형성하였다. 집행위원은 강기반(순천노동청년회), 박영진·한태선·정순제(순천청년회), 김종두(순천, 소속단체 불명), 최병휘(서면청년회), 정순화(광양청년회·광양청년연맹), 이용근(벌교청년회), 정태중(구례청년당)으로 구성되었는데, 순천 활동가들이 다수를 점하였다.

최병휘는 동아일보사 순천 주재기자로서 이즈음 서면농민회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김종두는 1923년 여름 순천유학생대회 회원으로서 순천청년회 주최 강연회에서 연사로 활약한 인물이었다. 정순화는 1902년 광양의 부유한 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일본대학 전문부를 졸업하였다. 그는 동아일보사, 시대일보사 등의 광양 주재기자를 지내면서 1924년 이래 광양의 여러 청년·노동·농민단체의 간부로 활동했으며, 1926년 5월경 고려공청에 가입하였다. 정태중은 1898년 구례에서 출생하여 시대일보사, 조선일보사 등의 구례 주재기자를 지내면서 구례청년당, 구례농민회 간부로 활동하였고, 1926년 6월경 고려공청에 가입하였다.

이처럼 동부청년연맹은 고려공청 순천·광양·구례지역 세포의 목적의식적 활동으로 결성되었으며, 사실 그들의 지도가 관철되고 있었다.<sup>1)</sup> 이무렵 고려공청은 청년운동조직에서 노동청년은 지역별·직업별 청년단체로, 농민청년은 1면 1회의 청년회로 결집한 후 이들 노동·농민청년단체를 연합하여 군연맹을 조직하고, 군연맹을 기본 단위로 도연맹을 조직한 후 이를 토대로 전조선청년총연맹을 기성(期成)함으로써 기존의 청총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청총을 조직적·통일적으로 중앙집권화하여 청년운동 초기의 자연발생성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

1) 동부청년연맹 발기회에서 여수지역에 파견한 출장위원 신명준은 조공 당원으로서 1926년 3월 전남도당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동부청년연맹의 출범은 고려공청의 청총 개혁방안과 무관하지 않았다. 아직은 전남에서 군연맹 결성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부청년연맹은 동부 각 군에서 군연맹을 축성하여 전라남도연맹을 완성하는 과도적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동부청년연맹 창립대회에서는 청년문제, 소년문제, 사회문제의 여러 측면에 대해 장시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결정된 사항은 1920년대 중반 청년운동의 지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소 길지만 전문을 인용해보기로 하겠다.<sup>2)</sup>

#### 청년문제

청년운동의 근본정신에 관한 건 : 청년운동은 신사회 창조를 내재(內在) 목적으로 할 일, 생의 원리를 확충하기 위하여 모든 사회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일

청년교양에 관한 건 : 신사회 건설에 적절한 계급의식을 촉진하며 과학적 정신을 함양할 일, 색채를 선명히 한 기치를 세우고 호상 단결과 훈련에 힘쓸 일, 운동의 방향을 통일하며 전위를 조직화할 일

청년단체 조직에 관한 건 : 청년 자신 해방을 목표로 하는 청년단체를 세포적(세포로) 조직할 일

청년단체 회원 연령제한에 관한 건 : 청년단체 회원의 연령은 만 18세로부터 30세까지로 할 일

노동·형평·여자청년에 관한 건 : 각자 해방을 목표로 한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해방운동에 병진케 할 일

지방청년운동의 국면에 관한 건 : 지방청년은 지방적으로 공고한 단결을 기하여 알력과 충돌을 떠난 신국면을 전개할 일

이류(異流) 청년단체에 관한 건 : 이류 청년단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그 내부를 혁신 또는 파괴할 일

#### 소년문제

소년운동의 근본정신에 관한 건 : 감정과 기분이 순수한 소년은 계급적 단결과 통일을 기함

소년교양에 관한 건 : 애정을 기초로 한 호상의 훈련과 단결적 정신을 함양할 일

소년단체 조직에 관한 건 : 진화법칙에 기인(基因)하여 세계사조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소년단체를 조직케 할 일

#### 사회문제

노동운동에 관한 건 : 현사회의 필연적 산물인 농촌의 농민운동과 도시의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원조할 일

형평운동에 관한 건 : 형평운동을 적극적으로 원조할 일

여성운동에 관한 건 :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원조할 일

#### 종교문제

현재의 각 종교는 사회의 권외(圈外)로 구축할 일

동부청년연맹은 사회의 모든 결함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청년운동의 임무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청년대중의 교양은 청년의 계급적 대단결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채울 것임을 천명하였다. 청년운동을 계급투쟁의 선상에서 전개하려고 하는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소년운동에 대한 지도와 노동·농민·여성운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을 결의함으로써 스스로 대중운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자임했다.

2) 『동아일보』 1925.9.20.

종교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의 권외로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1925년 중반 이래 사회주의 운동계에서 반종교운동이 고조된 사정과 관련된다. 종교를 배척하는 입장은 종교청년단체, 특히 기독교계 청년단체와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청년단체 회원의 연령은 만 18~30세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화요회그룹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청충에서는 1925년 3월, 만 16~30세 미만을 연령 제한선으로 확정한 바 있었다.

사실 동부청년연맹은 화요회그룹과 서울파그룹의 분파투쟁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두 그룹의 투쟁은 1925년 하반기 이래 격화되고 있었다. 청년운동 영역에서는 화요파·고려공청이 청충을 개혁하고자 한 반면 청충 다수파를 형성한 서울파그룹은 기존의 청충을 확대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군연맹·도연맹 결성을 둘러싸고 여러 지역에서 갈등이 표출되었다. 경기도, 함경남도, 경상북도에서는 두 개의 도연맹이 준비 혹은 조직되었으며, 경성에서는 한양청년연맹(화요파)·경성청년연합회(서울파)가 대립하였다. 전남에서는 서울파그룹의 영향 아래 있는 청년단체들이 1924년 3월 전남청년회연합회를 결성하였다.<sup>3)</sup> 동부청년연맹은 동부 6군만을 조직범위로 삼았고, 도 연합기관을 표방하지도 않았지만 사실상 조공·고려공청 계열 청년단체의 전남도기관 역할을 담당했다.

동부청년연맹은 첫 사업으로 동부 6군 순회강연을 기획하였다. 그것은 조직의 확대(가맹단체 확보), 운동방침의 확산과 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순회강연은 10월 1일 광양을 시작으로 여수·고흥·동강·별교·구례를 거쳐 10월 10일 순천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연사는 박영진·정순제·정순화였다. 연제는 '국제청년운동과 조선청년운동', '청년운동 내면관', '사회는 무엇으로 유지하는가?', '청년운동에 대하여', '사회의 진화와 우리의 장래' 등이었다. 동부청년연맹은 순천에 본부에 두고 있었고 집행위원 다수가 순천의 활동가였기 때문에 순천 사회단체와 공동활동을 전개한 경우가 많았다. 조선일보사의 대량해고사건에 항의하고자 조직한 '조선일보사 꺾수(해고)사건조사회'(1925. 11. 1, 조사위원 김기수·이영민·정순제) 활동이나 11월 9일의 사상문제 대강연회 개최 등이 바로 그러하다. 사상문제 대강연회는 동부청년운동, 순천무산자동맹회가 공동 주최하고 노동·농민단체와 조선일보사·동아일보사·시대일보사 3지국이 후원하는 형태로 열렸는데 경성에서 내려온 김단야(金丹冶: 고려공청과 청충의 중앙집행위원)가 '청년운동의 신국면'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열변을 토하였다.

동부청년연맹은 청년운동의 지역적 통일을 높이기 위해 1926년 1월까지 각 군에서 군연맹을 조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부청년연맹 결성 당시 동부 6군 가운데 광양지역에만 군연맹이 조직되어 있었다. 군연맹의 축성방침에도 불구하고 창립 1년이 경과하도록 군연맹이 새로 결성된 곳은 순천, 고흥 두 지역에 그쳤다. 1925년 11월 조공과 공청 조직이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검거선봉이 몰아치고 활동가들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가 강화된 사정이 군연맹 축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검거선봉이 잠잠해진 이후에는 당과 공청 조직의 복구와 재정비, 여러 분파 사이의 통일 공작에 주력하느라 한동안 공개영역에 주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순천청년연맹은 1926년 3월 7일 순천청년회, 순천여자청년회, 순천노동청년회, 서면청년회의 발기로 결성되었다. 이에 앞서 발기단체 대표들은 1926년 2월 28일 전남동부청년연맹 사무소에서 회합을 갖고 순천청년연맹의 선언, 강령과 가맹요령을 결정·발표하였다. 발표된 강령은 첫째 합리적 신사회의 건설을 기도함, 둘째 모든 해방운동에 선구가 됨, 셋째 호상 단결과 교양을 힘쓰는 3항이었다. 순천청년연맹 강령의 첫째·둘째 항은 청충의 강령과 거의

3) 청년운동의 도연합기관에 대해서는 조찬석, 앞의 논문 참조.

같으며, 셋째 항은 동부청년연맹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청년교양에 관한 건’과 거의 동일하다. 이 사실에서 순천청년연맹의 활동방침이 청충·동부청년연맹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순천청년연맹의 창립 당시 간부진은 알 수 없다. 1926년 5월 15일 정기총회에서 개선된 중앙집행위원은 이영춘(李榮春), 최병휘 등 12명이었는데 상무집행위원은 윤귀중·김태식(金台植)·한태선(서무부), 강기반(사회부), 김성우(교양부)로 구성되었다. 이름이 밝혀진 집행위원 7명 가운데 강기반은 순천노동청년회, 최병휘는 서면청년회 소속이었고, 김성우는 미상, 나머지 4명은 순천청년회 소속이었다.

발기회에서 발표한 가맹요령에 따르면, 순천청년연맹의 가맹자격은 “발기선언과 강령에 공명하는 순천군 회원 10인 이상의 청년회”에 주어졌다. 그런데 순천청년연맹 가맹단체는 서면청년회를 제외하면 모두 순천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였다. 따라서 각 면 청년단체를 청년연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군연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청년단체를 묶어 세움으로써 한 지방에서 청년단체의 단결과 청년운동의 통일을 도모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순천청년연맹은 각 청년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가맹을 권유하는 한편 각 면을 순회하며 강연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순천청년연맹의 활동이 본계도에 오르기도 전에 주객관 정세가 크게 악화되었다. 1926년 6월 초 순천·광양·구례의 활동가들이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체포되고 중앙에서는 6·10만세운동의 시위계획이 사전에 드러남으로써 조공 제2차 검거가 개시되었다. 순천의 청년운동권은 한동안 숨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

1926년 8월 5일 순천노동학원에서 동부청년연맹 제2회 정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는 15개 가맹단체 중 9개 단체대표가 출석하였다. 박영진, 정순화, 정태중이 임시집행부로 선정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대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는 전남청년연맹 가맹에 관한 건, 동부청년연맹 조직에 관한 건, 회원의 신체적 훈련에 관한 건,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참가에 관한 건, 조선민흥회에 관한 건, 송정리합동노동조합 분규에 관한 건, 상애회에 관한 건 등이었다.

새로 개선된 중앙집행위원은 강기반, 정순화, 정태중 등 10명이었다. 동부청년연맹은 정태중과 정순화를 파견하여 전남청년연맹과 타협한 후 가맹수속을 밟기로 하였다. 전남청년연맹은 1926년 2월 전남청년회연합회를 개조한 도기관이었다. 동부청년연맹이 전남도연맹에 가맹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합법영역에서 공청이 통일된 사정의 반영이었다. 즉 1926년 6~7월 조공 및 고려공청에 대한 제2차 탄압사건으로 고려공청이 파괴되자 그것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고려공청과 서울파그룹의 고려공산동맹이 1926년 8월 초에 합동위원회(합청 혹은 합Y)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부청년연맹 제2차 정기대회 직후 순천·광양의 활동가들이 조공 및 고려공청과 연계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차 검거선풍이 몰아쳤다. 1923년 이래 합법·비합법영역에서 사회운동을 지도해오던 순천·광양의 핵심활동가는 모두 체포되었다. 이로써 순천 사회운동의 지도역량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 1년 이상 침묵상태에 있던 동부청년연맹은 1927년 11월 30일 전남청년연맹 주최로 개최된 전남청년운동자 순천지방대회에서 해체를 선언하였다. 이에 앞서 순천청년연맹은 1927년 10월 순천청년동맹을 창립하고 해체되었다.

